

##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

김 덕 목\*

1. 머리말
2. 왜 마을기록관인가
  - 1) 왜 마을기록관인가
  - 2) 어떤 마을에 기록관을 세울 것인가
3. 마을기록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1) 마을기록관의 설립방법
  - 2)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
4. 마을기록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 1) 마을기록관의 활용방향
  - 2) 마을기록관의 운영
5. 맺음말

---

\* 한국민속기록보존소 소장

주요 논저 : 『민속종교 연구방법론』(2011), 「문화콘텐츠시대의 민속기록과 활용」(2010) 외 다수).

## [국문초록]

오늘날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기재로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마을에 대한 기록화와 자료수집, 마을기록관의 설립, 마을기록관의 관리와 운영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오래된 민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가를 리모델링해서 기록물을 전시하고 합리적인 보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록관에는 전시공간 외에도 자료의 보존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을 두기 위해서 민가의 각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며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민·관·학이 협력해야 한다.

**주제어 : 마을기록관, 문화공간, 아카이빙, 주민, 거버넌스**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마을은 수십 개의 가정이 결합된 공동체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가족을 기점으로 마을, 지역사회, 국가로 확대되는데 이 중에

마을은 말단의 사회단위로 자치를 위한 조직(이장, 반장)과 효율적인 생업을 위한 협동조직(두레 등)을 형성하고 친목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기타 부수적인 조직을 수반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마을을 볼 때, 주민들은 문화적으로 공동의 신(洞神)을 모시며 마을의례를 행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신밟기, 지정다지기, 농요, 줄다리기 등 공동체의 삶 속에서 배태된 놀이문화를 함께 영위한다. 또한 노인잔치, 야유회, 화전놀이, 체육대회와 같은 공동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가 행해진다.<sup>1)</sup> 인간은 “거주공간, 생산공간, 의례공간, 휴양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인 ‘마을’이라는 생활단위의 구성원 즉, 마을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sup>2)</sup> 과거 교통이 불편하여 오늘날과 같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생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경우 그에게 마을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진다.

‘마을’이란 지연(地緣)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의 기본단위이다. 이러한 지연공동체는 주민들 간의 협의에 의해 마을의 대소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의 전승문화를 향유하며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은 그들 나름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담보하게 한다. 지연공동체의 기본단위로서 마을을 아카이빙하고 기록관을 세우는 것은 그

---

1) 도시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촌락과 차이가 있으나 오늘날 도시 역시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나름대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도시에든 과거부터 내려오는 지연의식이 전혀 없지는 않다. 과거 도시화 전의 자연촌락의 공간영역 안에 존재하는 공간의 역사가 있고 토박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동계나 향토문화가 전승되는 곳도 드물지 않다. 서울시에든 동계를 지내는 마을이 현존하고 있다. 물론 타지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의 공동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등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를 마을의 개념 속에서 문화적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2)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45쪽.

들의 역사와 문화를 찾는 일이며 향토문화의 근간(根幹)을 지키는 일이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주변에 자리하여 지척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 ‘문화와 복지’, ‘민주와 자치’를 실현하는 밑으로부터의 혁신이다. 본문에서 필자가 굳이 다른 문화 형태를 피하고 마을기록관을 제안하는 것은 박제화된 전시관이 아닌 주민과 융합하고, 가능한 주민 스스로에 의해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상(像)’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록은 늘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근래의 기록관 리학도 공공영역에 치우쳐 왔다. 민간영역, 민중의 영역에서 민중의 삶의 토대인 마을의 기억과 흔적을 마을기록관으로 재생산해 내는 일은 기층에 있는 민중을 역사의 전면에 올려놓는 일이며 민중이 결코 역사의 피동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Kelvin L. White는 패러다임을 지탱시키는 아카이브 이론(archival theories)이 종종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것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가치중립이 아니고 지배문화의 재생산을 조장하는 헤게모니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키비스트가 지배그룹의 가치를 따라 간다고 보고 대학이나 아카이브즈, 박물관과 같은 정보기관(Information institutions)은 지배문화를 전달하는 주요 기관(main agencies)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전통의 선택(selective tradition)에 주목하면서 어떤 의미와 관습은 강조를 위해 선택되고 다른 의미와 관습은 무시되고 배제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또한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평가(archival appraisal)는 전통의 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한다.<sup>3)</sup> 기록하고 관리되는 것의 중심에 지배층과 지배문화가 놓여있는 경향은 동

---

3) Kelvin L. White, “The Role of Culture in Recordkeeping Infrastructures: Developing Culturally Relevant Archives in a Pluralist Society”,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 : 기업 및 지역공동체와 문화유산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아카이브즈의 활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2010.10.15, p. 7~9.

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모양이다. 또한 이런 것에 쉽게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아키비스트인 것 같다. 그동안 이러한 경향에 대해 비판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록관리학계에서는 여전히 공공기록물에 치우쳐 있다. 민간의 기록, 민중의 문화와 삶에도 눈을 돌려보자.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기록관’이라는 그릇에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 대중을 주인공으로 담아보자. 마을기록관은 민중사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지향점 속에 놓여있다.

마을기록관과 마을아카이빙은 특히 기록관리학이나 민속학에서 주목할 수 있으며 학제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기록관리학계에서는 이영남, 김익한 등에 의해서 마을만들기나 마을아카이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영남<sup>4)</sup>은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를 제안하며 그것은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풀무질하는 곳으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가까우며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community historical center), 마을치유센터(community recovery center), 마을창업센터(community commencement of an enterprise center) 등을 포괄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관련분야의 연구가 적박한 현실에서 이영남의 연구는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마을아르페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마을기록관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징검다리로서 하여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어 관련분야의 연구지평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이영남이 제시하는 마을아르페는 면(面) 단위나 도시의 동(洞)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의 공동체 생활에 기초를 이루는 촌락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

4)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제18호, 한국기록학회, 2008.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익한은 “마을이야말로 공동체적 삶의 말단 현장이며 동시에 시민 사회의 기반구조를 공고히 해가기 위한 민주주의의 말단 현장”<sup>5)</sup>이라고 보고 마을아카이빙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하였다. 그는 마을아카이빙과 공공기록관리를 비교하며 양자 간에 주체와 대상,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마을아카이빙 운동의 전개 방식은 마을만들기 운동과 공동 진행을 전제로 해야 하며 아카이브 이론의 적용이라는 관점보다 아카이빙의 방법을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한 수단으로 위치 지우는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6)</sup>

김익한의 논의는 마을아카이빙의 목표,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시론적인 논의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물론, 마을아카이빙이 반드시 아카이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을만들기 운동의 일부로서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을아카이빙은 마을기록관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라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김익한의 논의가 마을기록관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고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가 마을만들기와 마을아카이빙의 관리와 서비스 측면에서 마을 공유 공간을 통해 전시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아카이브 전시관, 마을주민의 화합공간 등의 일체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마을기록관의 방향과 크기는 다르지

---

5) 김익한, 「마을아카이빙 시론」,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10.6.11, 46쪽.

6) 김익한은 마을아카이빙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시각에서 전제되어야 하고 활동의 증거를 모두 기록으로 수집하는 시각이 요구되며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고려를 전제로 아카이빙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자연공간 아카이빙, 인문공간 아카이빙, 마을 역사 아카이빙, 공동체 조직에 대한 아카이빙, 공동체 문화에 대한 아카이빙, 경제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소조직에 대한 아카이빙, 개별 가호에 대한 아카이빙, 네트워크에 대한 아카이빙으로 마을아카이빙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아카이빙의 주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익한, 「마을아카이빙 시론」, 50쪽.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학계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지만 민속학계에서도 마을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았다. 민속학계의 장점은 마을아카이빙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는 점이다. 민속학자들은 예전부터 마을을 중심으로 민속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마을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왔다. 장철수는 “독립적인 생활단위를 형성”하여 민속조사의 기본단위라고 볼 수 있는 마을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민속지의 작성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sup>7)</sup> 또한 그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했던 『韓國의 鄕村民俗誌』<sup>8)</sup>를 기획하고 추진한 바 있다. 안동대 민속학연구소에서도 마을민속에 주목하여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sup>9)</sup>

거버넌스, 주민복지, 시민사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민주주의의 말단으로서 마을기록에 주목한 기록관리학계와는 달리 민속학계에서는 민속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단위로서 마을에 접근하였다. 또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민속을 연구하고 민속지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즉, 같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록관리학계가 민주주의의 말단으로서 마을아카이빙에 주목하였다면 민속학계에서는 민속연구를 위한 기본단위로서 마을에 주목하였다.<sup>10)</sup> 이러한 양자

7)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139~147쪽.

8) 이 책은 민속학자 장철수가 기획하여 1992년 경상북도 편을 시작으로 각 도별로 몇 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마을과 사회, 생업과 의식주, 세시와 놀이, 신앙과 의례, 개인생활사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민속지를 발간하였다.

9) 『마을 민속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 2003) ; 『마을 민속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 2005) ; 『마을 민속비교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 2006) ;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 2007) ; 『마을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 2009) ;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원, 2008).

10) 1990년대 이래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지가 발간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향토지의 일환으로 마을에 대한 안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심화된 기록화 전략이나 방법론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물론 민속학자들이 집필하는 민속지나

의 입장과 구체적 방법은 융합을 통해 마을기록관 및 마을아카이빙을 위한 한층 진전된 전략과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록관리학계에서 제시되는 방향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치(協治), 아카이빙과 아카이브를 통한 공유와 소통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 주민복지와 같은 거시적 전략으로 장점을 가진다. 반면 기록관리학계는 현장에서의 기록화 경험이 부족하여 현장과약 능력이 부족하다. 민속학계의 경우에는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실제 아카이빙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자와 같은 거시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록관리학계와 민속학계의 지혜를 합칠 때 마을기록화와 마을기록관 설립 운동은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지혜를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학제 간의 결합이다. 이를 통해 마을기록화와 마을기록관 추진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커뮤니티 아카이브즈의 일종으로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즈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연구이기도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마을기록관의 설립방안을 검토한다. 왜 마을기록관이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며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향토지가 기록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멸실되어가는 민속이나 현재 주민의 삶에 대한 기록화를 하고 있다. 특히 필자와 같은 연구자는 민속학 연구에서 기록성을 중요시 여긴다. 압동대 민속학연구소에서 마을과 관련하여 시리즈로 발간한 책자에서는 마을만들기, 마을의 민속자원화, 마을 민속아카이브에 대한 서술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운동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민속학과 기록관리학의 만남을 통해 한층 진화된 이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 2. 왜 마을기록관인가

### 1) 왜 마을기록관인가

마을기록관, 마을기록화, 향토의 역사문화찾기와 같은 논의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가 지나친 개발과 전통의 상실, 경제력에 비해 문화적 후진성에 처한 현실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낳게 한다. 그렇다면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일방적인 진화론의 입장에서 개발 중심으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친화적이며 전통과 역사를 공존시키는 문화적 연속성의 토대 위에서 다채로운 마을을 가꿀 것인가. 그동안 전자는 건설 만능주의로 치달았고 현대 한국사회의 주축으로 되어왔다. 아파트는 모든 것 위에 군림했고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가졌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수백 년 간 내려온 주민 공동체의 삶이나 그 자취들은 낙엽처럼 치워졌다. 서울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역대 시장들은 그랬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기존의 개발논리를 반성하고 마을공동체의 유지와 전통과 역사를 공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다.<sup>11)</sup>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서울의 토박이들을 흩어지게 하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역공동체 문화(동계 등)나 한옥 등의 근거기반을 소멸시킨다. 뉴타운으로 인해 동계를 꾸려가던 주민들이 흩어짐으로 해서 자연히 토착적인 문화는 소실되고

---

11) 박원순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저서로 출간한 바 있다. 박원순, 『마을, 생태가 답이다』(검둥소, 2011); 『마을이 학교다』(검둥소, 2010);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검둥소, 2009).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의 매장터 위에 이방인들의 신주거지가 들어선다. 가는 곳마다 문화와 역사가 넘쳐나던 고도(古都) 서울은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만이 즐비한 신도시화 되고 왕궁이나 지배층의 유적 외에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토박이 주민들의 향토문화는 상실된다. White 교수의 지적처럼 특정한 지배층의 기억만이 보존되며 민중의 문화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지배층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부에 있는 민중의 문화가 동등하게 기억 속에 남겨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고도 서울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날 오죽하면 외국인이 한옥을 보존하자고 법원에 소송을 내겠는가. 건설업체에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에 찾아와서 재개발을 시켜준다며 토지소유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감언이설로 동의서를 얻어 낸다. 여기에 편승하는 일부 토지보유자들은 땅값 상승이나 투기에 골몰한다. 이렇게 서민의 주거지를 가지고 장사치들이 건설과 개발의 논리로 농단할 때 가난한 세입자들은 더 짝 외지로 쫓겨난다. 이러한 제반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향토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마을기록관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역량은 아직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지방기록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sup>12)</sup> 진전이 있었다면 이제 지자체마다 기록물을 전담하는 기록관리학 출신인력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개 이런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문서고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는 것

---

12) 지방기록관과 관련된 논의로는 안병우, 「지방기록관 설립과 경기기록문화포럼의 활동」, 『영남학』 6호, 영남문화원, 2004 ; 김덕목, 「향토문화의 기록보존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용인시를 중심으로-」,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 : 기업 및 지역공동체와 문화유산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아카이브즈의 활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2010.10.15 외 다수의 글이 있다.

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sup>13)</sup>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자료관을 설립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2006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6개 광역 시도에서 국가기록원과 16개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은 없다.”<sup>14)</sup> 이영학의 지적처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성취하고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며 역사문화센터로서 지방기록관이 위상을 가지거나<sup>15)</sup> 지역 행정의 효율성, 역사 및 문화의 효율적 기록과 관리, 향토문화의 증거물, 시민교육기관, 현대 도시사회가 안고 있는 정서적 불안정의 극복,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 등으로 지방기록관의 설립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공간으로서 지방기록관의 설립은 아직까지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도 없는 상황이다.

시군단위의 지방기록관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기록관이라니, 독자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보다 나중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어쩌면 마을단위의 기록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그보다 큰 공간적 범주에 속하는 지방기록관도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가 선후라기보다 연대하여 향토에 기록문화를 뿌리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 마을기록관이 중요한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은 인구, 문화, 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북 내륙의 어느 군(郡)의 예를 들면 한때 8만에 이르던 군민은 2011년에 2만 4천여 명으로 축소되었다.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로 나갔다는 것이다. 농촌은 노인들

13) 이와 관련된 현황은 안병우, 「지방기록관 설립과 경기기록문화포럼의 활동」, 178~182쪽을 참조할 수 있다.

14) 이영학,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 2010.6.11, 1~2쪽.

15) 이영학,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3~4쪽.

만 남아서 활력을 잃고 문화적으로도 상실감에 놓여있다.<sup>16)</sup> 반면 도시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은 집값의 상승, 도로정체, 자연친화적인 일반주택의 급감과 고층아파트로 도시의 경관은 마비되고 있다.<sup>17)</sup> 문화적인 배려 없이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경제논리만이 강조되며 마구잡이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던 동아시아의 전통은 찾아볼 수 없고 환경파괴와 건설, 투기조장으로 수도권의 촌락을 멸실시키고 대도시에서도 토박이 주민들이 본고장을 떠나면서 지연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는 상실된다. 농촌에서건 도시에서건 향토문화와 주민공동체의 기본단위인 전통적 촌락은 멸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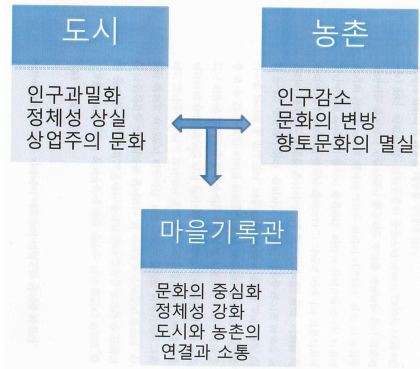
이렇게 사라져 가는 마을을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거주지의 풍수가 사나우니 그 속에 처한 인간의 정서나 인심도 각박해진다. 마을의 상실은 문화의 상실, 집단의 정체성 상실, 개인의 자아상실로 이어지고 심한 후유증을 앓아야 하며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문화에 우리를 맡기게 된다. 프랑스의 예를 보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전체를 문화재로 보고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주민참가형의 지역 박물관 활동(수집보존, 조사연구, 전시교육 보급)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에코뮤지엄이 탄생한 배경에는 1960년대 후반 도시의 인구집중, 정신적 황폐, 아이덴티티 상실 등에 따른 부정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사상적 운동에 사로잡혔다. 그 큰 하나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지역환경

---

16) 농어촌 인구는 2010년 875만8천명으로 2005년 876만 4천 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감소세는 과거보다 약해졌다.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향촌형 인구이동이 향도형 인구이동보다 우세해진 결과다. 인구 감소세 약화에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과소·공동화 현상은 급격히 악화했다. 2010년 기준으로 과소화마을(20가구 이하)은 3천91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 3만 6천496개의 8.5%다. <연합뉴스> 1012년 6월 10일.

17) 김덕목,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한국민속기록보존소, 2011, 385쪽.

에 밀착하여 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sup>18)</sup> 우리도 이러한 대책이 요구된다. 농촌에 다시 사람을 모으고 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균형과 조화, 문화적인 충족감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것을 마을기록관에서 찾고자 한다.



<그림 1>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인 삶을 선도하는 마을기록관

마을기록관은 도시는 물론 농촌에 새로운 분위기를 진작시키며 문화 변방으로서의 농촌이 아니라 그곳을 문화중심지로서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마을기록관은 새로운 도시와 농촌문화의 대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어떤 마을에 기록관을 세울 것인가

우리는 앞에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제

18) 오히라 가즈오키, 김현정 역,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아르케, 2008, 31~56쪽.

기되는 문제는 그것이 실현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어떤 일도 쉽게 되는 것은 없다. 연구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초기에는 좌절을 겪을 수도 있으나 점차 일반화되고 나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어떤 마을에 기록관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고민된다. 이것은 마을의 '규모'나 마을의 '특성'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 도시의 경우에는 형편이 다르지만 오늘날 농촌에는 인구가 상당히 줄었다. 필자의 고향 마을을 보더라도 1980년대에는 100여 호에 육박했으나 오늘날 40여 호가 남아있다. 가구 수가 적은 마을에서는 사실상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힘들다. 최소 30~40여 호 이상은 되어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가구 수에 관계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집에 개인기록관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서도 규모가 작을 뿐 기록관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마을의 특성도 따져보아야 한다. 역사나 유래가 깊은 마을, 보존할 문화유적이거나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 특별한 테마가 있는 마을(화전촌, 탄광촌, 장터, 무당촌, 옹기를 굽던 마을, 염전이 있는 마을, 생태환경이나 경관이 뛰어난 마을) 등을 선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을의 인구나 마을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마을기록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애초 마을 기록관의 설립취지가 희석된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적 삶을 유지하고 주민 공동체의 말단에까지 복지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마을기록관이 주창 되는데 주민이 많거나 특정한 테마나 주제거리가 있는 곳에 만 한정된다면 그것은 전시행정이 되거나 기존의 향토자료관이나 전시관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

마을기록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마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마을에서 실시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이러한 층위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있다. 이와 비례해서 마을기록관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을 개성화

하려면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는 각 마을의 특성에 따른 테마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테마에만 치우쳐서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아카이빙이나 자료수집,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기록관의 양식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문화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틀(이러한 양식은 모든 마을기록관에서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요소)과 함께 마을의 특성을 살린 테마가 추가되어야 한다. 만약 마을의 볼거리, 흥밋거리 위주로만 마을기록관이 추구된다면 그것은 마을 기록관의 본질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을주민의 삶을 토대로 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을 만들 때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면 A라는 마을에 있는 지계와 B라는 마을에 있는 지계가 동일하게 보이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자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같은 종류의 민구라도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다르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민구라도 내재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한다. 가령, 옛날 안중근 의사가 지고 다닌 지계라고 할 때 다른 지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A마을의 지계는 그 마을사람의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으며 그들의 역사 속에 있고 B마을의 지계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담겨 있다. 같은 종류의 전시물이라고 하여 같은 것이 아니다. 마을주민의 눈에서 보면 저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것, 저것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구입하여 사용해 온 것, 우리 마을 공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연자방아,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온 것, 내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물건, 300년 동안 마을에서 사용하던 상여 등 그들만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마을기록관에서 전시하는 민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골동품 상회에서 구입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건져져야 한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차별화되지 않지만 주민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의 삶이 묻어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된다.<sup>19)</sup> 즉,

다른 마을의 것과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교복을 입고 운동장에 서있는 학생들을 외지인이 보면 다 같은 학생이지만 주민이 보면 내 아들이나 이웃집 아이나 구분이 가며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

만약 마을기록관이 외부인의 시선(혹은 官중심의 시선)에 의해서 재단되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박제화 된 향토전시관을 만들거나 전시행정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볼거리만을 추구한다면 주민 스스로의 문화주권을 포기하고 마을기록관을 그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방치하게 할 수 있다.<sup>20)</sup> 마을기록관은 근본적으로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외부인이 방문하여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그들의 편의나 실용성에 의해서 건립되듯이 마을기록관 역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면 된다.

마을기록관을 중앙정부나 지자체, 외부인의 시각에서 규정하고 설립하려 한다면 그것은 관광지에 있는 전시관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 이전에 주민의 삶을 수렴하는 것이며 재구성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즉, 내재자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 
- 19) 물론 이러한 특징을 살리려면 전시된 물건에 출처를 밝히고 그것과 관련된 스토리를 넣어야 한다. 따라서 수집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자료와 연결을 지어야 한다. 만약 그냥 마구잡이로 골동품 수집하듯이 모아서 전시한다면 그 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민구에는 그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다. 그것은 곧 조상의 얼로서 마을에 남겨져야 하고 문화재로서 설명서(사용처, 사용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기록보존 되어야 한다.
- 20) 실제로 마을기록관 설립에 있어 이렇게 될 함정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들이나 아키비스트가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눈앞의 성과나 보여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마을기록관이 스타일리스트와 같은 외양에 치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실패를 의미한다.



한다. 마을기록관은 단순한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담고 삶의 일부로서 전승되고 채워지는 역동적인 그들의 자화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테마가 있는 마을을 위주로 건립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이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실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마을기록관은 이러한 기존의 발상과는 다르다. 이것은 외부인의 시선에는 볼거리가 없고 테마가 없다고 해도 그곳에 주민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는 이상, 마을기록관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점을 처음에는 외부인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점차 그들도 보다 심층적으로 이러한 속살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한층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테마가 있고 역사가 있는 마을, 만약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한다면 과거 지배층 중심의 기록과 다를 것이 없다. 잘난 마을, 못난 마을이 없다. 모든 마을이 주인이고 주민 누구나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록의 민주화요, 마을기록관의 정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기관이나 형태 즉, 향토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이 아닌 왜 마을기록관이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마을기록관은 박제화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곳이다. 즉, 마을기록관에서 전시는 '기록'을 압도하지 않으며 전시란 쉽 없는 기록 속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볼거리만을 추구하는 관람용 전시관이 아니며 외부인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곳이 아니다. 물론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취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문화주권과 자치를 존중해야 하며 그들 스스로의 삶을 담고 채워가는 그들의 자화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을'기록관'으로서의 형태가 요구된다.

### 3. 마을기록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1) 마을기록관의 설립방법

##### (1) 참여자들의 인식과 지원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가령 외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록관이 설립될 수 없다. 향토문화는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고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자각이 절실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에 열기를 불어넣어줄 성공사례 소개나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이 요청된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운동을 펼쳐야 한다. ‘역사문화찾기 운동’<sup>21)</sup>이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마을기록관 설립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의식도 전환될 것이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설립 등에 지원을 하였는데 마을기록관 설립에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sup>22)</sup> 셋째는 학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자들의 선견지명(先見之明)과 방향제시는 현장에서 행해질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천논리로 이어지고 마을기록관 설립 운동은 활성화될 수 있다.

21) 197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재래의 새마을운동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탈피하고 근대적인 개발논리에 입각한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파괴되고 잊혀져가는 유무형의 민속과 역사, 문화자원을 새로운 가치에서 해석하고 기록·보존·활용을 목표로 하는 마을의 ‘역사문화찾기운동’이 요구된다. 김덕목, 「문화콘텐츠 시대의 민속기록과 활용」, 『비교민속학』 제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2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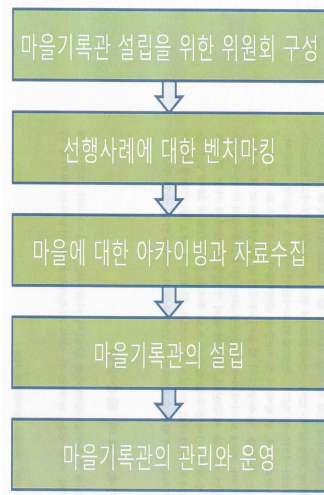
22) 의성의 ‘사촌마을자료전시관’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공간 한 칸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마을의 고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관리도 마을 이장의 책임하에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게 하거나 마을의 노년층을 이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에서 ‘마을만들기(街づくり)’로 유명한 세타가야구(世田谷區)는 구청 내에 ‘마을만들기과’를 설립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별도로 ‘재단법인 세타가야구 도시정비공사’에 따로 ‘마을만들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자금은 ‘마을만들기 공익신탁’ 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세타가야구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민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23)</sup>

## 2)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

### (1) 마을기록관 설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을기록관은 주민과 지자체, 정부, 학계의 공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주민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마을기록관의 설립을 정책으로 권장하고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마을기록관을 설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이론과 방법을 창출하여 마을기록관의 설립방법에서부터 운영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마을기록관 설립에 대한 의지가 표명되면 주민대표, 지자체 관계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립 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림 2>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

23) 이명규,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과 대표사례」,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2008, 278~2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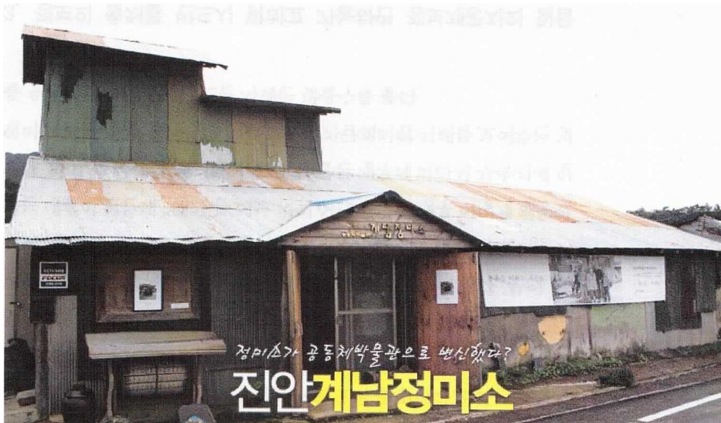
## (2)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면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종합적인 문화요소가 수반되는 일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전시관이나 기록관의 기능을 넘어 마을의 복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속성, 마을의 자원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른바 ‘마을학’이라고 할 만한 종합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록관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마을의 활용 등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기록관을 설립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고려가 없다면 마을에서 마을기록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마을기록관이 설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행사례를 제시할 만한 곳은 없다. 다만 현재 마을기록관은 아니지만 마을전시관 등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환경과 생태, 문화유산, 생활문화 등을 박물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에코뮤지엄(Ecomuseum)이나 지역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풀무관 설립 프로젝트(면 단위의 아카이브 구축), 성미산 마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통합문화공간으로서 마을 기록물 보관소 설립), 백두대간 마을 기록화(산간마을에 대한 영상기록)<sup>24)</sup> 등 국내외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고 마을단위의 전시관도 참고가 된다. 허물어진 정미소 건물을 수리하여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계남정미소’는 용도가 끝난 마을의 정미소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된다.<sup>25)</sup> 계남마을의 정미소는 사진작가인 김지연 씨가 정미소의 시설과 농촌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특히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옛 사진

24) 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1호, 한국기록학회, 2009, 56~57쪽.

25) 계남정미소와 관련된 내용과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http://jb.go.kr>)에서 참고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나 과거 머슴살이 때부터 당시 구매했던 물품과 관련된 기록들까지 전시하고 있어 생활사 자료관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곳은 문화체험과 전시를 통해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곳으로 농촌을 살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인근 주민들, 미술이나 건축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일반 여행객 등도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렇게 고택, 민가, 시장, 골목, 폐교, 창고, 공장 등의 넓은 공간들이 적지 않게 있다. 문화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3> 넓은 정미소를 공동체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계남정미소

배영동이 소개한 의성의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이나<sup>26)</sup> 이영재가 소개한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이나<sup>27)</sup> 필자가 보았던 보령시 노천리 ‘가리티마을’의 자료관도 참조가 된다.<sup>28)</sup> 또한 마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26) 배영동, 「마을문화전시관으로 본 마을문화의 자원화 과정 -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의 사례 -」,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7.  
 27) 이영재, 「지방박물관에서 마을민속의 자원화 과정과 방법」,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7.  
 28) 이곳에는 1998년에 향토유물관이 세워졌다.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과거에 사

서 기록관 자체뿐만 아니라 그밖에 민속마을, 테마파크, 생태마을, 농촌 체험마을, 마을축제, 마을여행, 특산품 판매 등 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요소의 활용에 대한 사례 수집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sup>29)</sup> 이러한 총체적 이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기록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마을자원의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 경기도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모현면 능원리 ‘호박등불마을’은 정몽주의 묘소와 등잔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근래에 용인시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화전 만들기, 떡케익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된장 만들기, 다도, 한지공예, 대보름맞이 축제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용인, 분당 등 인근 도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호박을 활용하여 단호박떡케익이나 호박즙을 판매하고 있다.<sup>30)</sup>



<그림 4> 호박등불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용하던 생활도구나 농기구, 활동사진 등을 전시해 놓았다. 마을단위에서 이러한 자료관을 설립한 것은 당시로 볼 때 고무적이며 혁신적인 것이었다.

29) 김덕목, 「문화콘텐츠 시대의 민속기록과 활용」, 『비교민속학』 제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282쪽.

30) 마을 홈페이지(hobak.go2vil.org)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모현면 갈담리 갈월마을에서는 용인 평생학습센터의 후원을 받아 용인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4월~11월(시간 10:00~14:30, 참가비 1인: 1만 2천원) 총 7회에 걸쳐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sup>31)</sup>

<표 1> 갈월마을 체험프로그램

주제(일시)	내용
전통마을의 모습 (4/17)	마을 돌아보기-전통 마을의 모습과 구조 농사일 살피기-감자 싹보기, 옥수수 씨심기, 못자리체험 전통 삶의 방식-봄나물 알아보기
전통가옥의 모습 (5/22)	마을 돌아보기-전통 가옥의 모습과 구조 농사일 살피기-모내기 전통 삶의 방식-화전 만들기
마을과 숲 (6/22)	마을 돌아보기-마을 숲 돌아보기 농사일 살피기-감자캐기, 전통 삶의 방식-단오의 의미와 체험
논습지의 중요성 (8/21)	마을 돌아보기-마을 물 살펴보기 농사일 살피기-고추따기 전통 삶의 방식-여름나기
지속가능한 아름다움 (9/25)	마을 돌아보기-전통마을의 예술성 농사일 살피기-밤줍기 전통 삶의 방식
쌀이 되기까지 (10/23)	마을 돌아보기 농사일 살피기-벼베기, 고구마캐기 전통 삶의 방식-한식, 쌀의 미학
녹색에너지마을 (11/13)	마을 돌아보기-녹색에너지마을 농사일 살피기-콩타작, 마늘심기 전통 삶의 방식-슬로우푸드 메주만들기

마을의 구전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마

---

31) 관련내용은 들뢰자연학교 카페(cafe.daum.net)에서 참고하였다.

을의 구전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동 구문소 마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구멍이 있는 연못이라는 뜻의 구문소(求門沼)에서 낚시를 하던 이가 물에 빠져 용궁으로 잡혀가 용왕에게 “왜 물고기를 잡느냐”고 문초를 당한다.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 물고기를 잡았다는 하소연에 용왕은 낚시꾼에게 떡을 주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낸다. 용궁의 떡을 자식을 위해 주머니에 넣어 나왔지만 딱딱해져 먹을 수 없었기에 쌀독에 넣어뒀는데 이 쌀독에서 끊임없이 쌀이 쏟아져 나와 부자가 됐다.” 농촌진흥청은 마을주민들과 이 용궁전설을 활용한 관광 체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용궁을 활용한 마을 디자인과 캐릭터를 만들었으며 용궁전설을 역할극으로 재현, 마을을 찾는 어린이가 직접 배우가 되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구슬에 소원을 적어 복주머니에 넣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밖에 전국 10여 개 마을의 구전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컨설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sup>32)</sup> 마을의 구전지식이나 전설, 설화 등을 아카이빙하고 마을기록관에서는 그것을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그곳에는 무궁한 자원이 남겨져 있다. 마을기록관을 채울 수 있는 소재들은 넘쳐난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 (3) 마을기록관에 남길 자료

#### 가. 마을기록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을기록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외부인만을 의식한 단순한 보여주기 식이나 가벼운 눈요깃거리는 식상해질 수 있

---

32) <연합뉴스> 2012년 1월 15일 기사 참조.



다. 또한 그런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지 못한다. 커뮤니티는 혈연, 지연, 종교, 특정한 목적 등에 의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각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즈(community archives)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다. 이곳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정체성(identity)에 있다. 그들의 삶의 내력과 흔적, 기억, 그들의 실제 생활과 생활문화를 마을기록관에 남겨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1차적으로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삶을 증거하고 전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2차적으로 타지와 비교해 그 마을의 특성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첨부해야 한다. 그것은 마을테마로 특성화하여 주제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한 후 전시, 홍보, 교육 등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마을기록관은 그 특징으로 볼 때 민속 아카이브(folklore archive)의 측면도 강하다. 민속 아카이브는 다큐멘터리 아카이브(documentary archive)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sup>33)</sup> 다큐멘터리 아카이브에서는 필사본이나 활자화 된 제 형태의 자료들이 주종을 이룬다면 민속 아카이브는 기억 속에 남겨진 전통이나 기술 혹은 전승되는 다양한 측면들이 비중을 차지한다. 스웨덴 옅살라의 민속연구소(the Institute for Dialect and Folklore Research)에서 이용하는 분류체계를 보면 민속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 즉, 마을과 주거, 생업, 교통과 교역, 지역사회, 일생의례, 자연, 민간의료, 연중행사, 민간신앙과 관행, 신화, 역사, 종교, 운동과 오락, 음악, 경기, 연회, 춤, 게임, 건축 등 다양하다.<sup>34)</sup> 마을기록관은 마을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커뮤니티 아카이브로서 민속 아카이브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33) George List, "ARCHIVING", FOLKLORE and FOLK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72, p. 455.

34) *Ibid*, p. 456.

물론 이러한 제 측면을 마을기록관에 남기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먼저 기록화와 자료 수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록관이 구성된 후에도 주민의 삶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아카이빙과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매년 수집과 기록이 있어야 하며 주민 중에는 마을 일기를 쓰듯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련자료를 모아야 한다. 특정한 행사나 마을에 주춧돌을 신축하거나 마을길을 넓히는 일 등 마을 변화가 생길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일도 필요하다. 매년 마을공간을 촬영하여 시차에 따라 분류하면 훗날 마을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게 모아지는 자료들은 주기적으로 마을기록관에 전시되고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을 관리하는 주민이 이러한 일을 하면 적합할 것 같다. 근래에는 멀티미디어가 발달하여 누구나 영상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자료를 수집하여 DB화 할 수 있다. 마을기록관에서 하는 기록과 수집은 공공기록물의 기록보존과 차이가 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현용 단계에서 비현용 단계로 넘어갈 때 선별과 평가가 있지만 마을기록관에서는 수집과 기록 단계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남기며 무엇을 기록관에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선별과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학’이 자리를 잡아 마을 간의 정보교환이나 견학이 활발해지고 마을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된 자료를 통해 청소년이나 다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마을기록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 기록관은 박제화 된 전시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민들이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자신들을 표현하는 산물이어야 한다.

나.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화와 자료수집<sup>35)</sup>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내용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즉, 마을기록관의 준비단계에서 원천소스를 필요로 한다. 옛사진, 주민들의 활동사진, 각종 문서, 기록물, 민구, 음향, 동영상자료 등의 수집은 물론 마을에 대한 아카이빙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마을기록관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마을아카이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록화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전시물과 디지털 콘텐츠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한다.

마을아카이빙에 있어서는 마을의 특성과 구조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마을에 대한 총체적, 구조적,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록화를 하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록관을 만들어야 한다.

마을기록화를 위한 항목은 마을공간(자연, 인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민구, 기록물, 마을신앙, 세시풍속, 자치조직(노인회, 청년회 등)과 마을사람(세거성씨, 생애사, 문중조직), 마을의 역사, 일생의례, 축제, 놀이, 생업, 시장, 문화유적, 전설, 설화 등 모든 것이 망라된다. 이들 대상은 생활문화를 연구하는 민속학의 연구대상과 상당부분 중첩된다. 따라서 조사방법에서부터 민속학적 노하우와 지식이 요구된다. 기록물의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기록관리학적 교육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민속기록학’이 요구되며 이것을 통해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sup>36)</sup>

마을아카이빙에서는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대상화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선별

35) 마을아카이빙에 대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간략히 살펴본다.

36) 필자가 마을아카이빙에 대한 강의에서 세시풍속이나 마을신앙 등의 기록화 방법에 대해 언급하면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내가 지금 민속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존의 ‘기록물관리학’만으로는 아카이빙이 보장될 수 없다.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마을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즉, 마을아카이빙에 있어 ‘기록대상’은 주민들의 삶의 전체상과 그 세부적인 것들의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조망되고 포착 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대상이 기록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의 삶의 모습과 내력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축적되는 자료는 역사의 한 구성물이 되고 마을사는 물론 ‘생활문화사’의 사료가 된다.

한편, 마을에서 수집된 자료는 출처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며 주민의 삶을 스토리텔링으로 옮길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수집되고 기록된 자료는 전시할 것, 디지털콘텐츠 등사용할 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아카이빙을 통해 책자(마을지)를 발간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책자도 마을기록관의 일부로서 활용될 수 있다.

마을아카이빙을 위해서 처음에는 민속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기록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주민 스스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나 마을의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마을기록화는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기록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 (4) 마을기록관의 설립

##### 가. 마을기록관의 공간과 위치

마을기록관은 전시공간과 자료의 보존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전시공간은 마을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한 칸을 이용해도 되고 마을의 빈집을 활용해도 된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신축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가급적이면 오래된 민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가 건축물 자체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향토자원이기 때문에 마을

기록관의 취지나 민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마을에서 오래된 민가를 그대로 활용하여 여러 개의 방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여 전시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해도 된다. 즉, 안방은 여성생활사와 관련된 자료 전시, 사랑채는 족보, 동계문서, 주민들의 기록물 등을 전시하는 공간, 건넌방은 아이들과 관련된 전시물을 배치, 광에는 농기구와 관련된 것, 마루는 관리 및 휴식공간, 창고를 개조하여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규모가 작은 곳은 아래채의 내부를 조금 개조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안채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해도 좋다. 규모가 큰 곳은 이웃하는 몇 채의 민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빈집, 방앗간, 상여집, 창고 등을 활용하여 각 주제에 맞는 테마파크 형태의 마을기록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현재 일상적인 주거가 없는 이들 공간과 동계당, 문화유적, 선산 등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구축하고 스토리텔링을 엮어가며 마을 관람의 코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마을의 빈집을 범접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헐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조선후기 혹은 일제시기, 해방 직후 등 길게는 10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대책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옛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다. 옛 모습이 유지된 빈집이야말로 주민들의 과거 주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격의 자원이다. 빈집을 향토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공간은 가능하면 마을의 중앙이나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좋다. 외진 곳은 기록물의 도난 우려도 있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관 앞에 넓은 공터나 마당이

있어 주민들의 행사나 마을축제, 윗놀이대회, 노래자랑과 같은 것이 벌어지거나 한쪽에 운동시설이나 벤치 등이 있어 휴식이나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 나. 마을기록관을 위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마을기록관의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일 때 의미가 크다.<sup>37)</sup> 경우에 따라 신축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면 신축보다는 마을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민가나 고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가를 활용할 때는 안과 밖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전시공간, 연구공간, 휴식공간 등을 마련하고 각각의 기능에 맞게 집안의 안팎을 꾸며야 한다.

#### 다. 기록물의 전시<sup>38)</sup>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마을에서는 몇 칸 규모의 작은 공간에 전시물을 전시하게 된다. 전시방법은 사진과 설명서를 결합시킨 패널전시를 하거나 진열장을 만들어 실물을 전시하고 영상물을 상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반마을의 경우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자취와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과 설명문을 부착한 패널전시와 큰 민구는 그대로, 작은 민구, 문서류, 기록물 등은 진열장에 전시하여 설명문을 만들어놓으면 될 것 같다. 꼭 전문박물관처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액의 예산지원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소박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그들의 자취와 삶의 흔적을 전시한다는 점에

---

37) 마을기록관의 건물자체도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것일 때 마을기록관 설립 운동의 취지와 맞다.

38)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관리학에서 말하는 기록물에 국한하지 않으며 마을을 증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의미를 두자. 그것만으로도 외부인들에게는 흥미진진한 마을의 볼거리가 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된다. 물론 배영동이 소개한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처럼 전문적인 전시관을 목표로 건립할 수도 있고<sup>39)</sup> 마을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한 양상을 띠 수 있다.

#### 라. 전시물의 보존대책

전시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전시물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등의 과학적 보존방법이 전제된다. 분실우려도 있는데 마을의 민구나 골동품을 훔치기 위해 고물상이나 골동품업자들이 절도행위를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화되어 왔다. 농촌의 민가에 사람이 없는 때를 틈타서 오래된 민구를 훔쳐서 경매를 하거나 골동품 상회에 넘기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마을전시관에서도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던 민구는 그 마을의 자원이다. 골동품상이나 고물장사들이 마을에서 함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 만약 빈집이 생긴다면 그 집의 민구들을 마을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도시에 유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민구들이 절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주민 스스로 이들의 가치를 마을 문화유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 마. 마을기록관 설립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전문가 양성

마을기록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속아키비스트'가 육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기록물 관리에만 치중된 인력은 지방기록관

39) 배영동, 「마을문화전시관으로 본 마을문화의 자원화 과정 -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의 사례 -」.

이나 마을기록관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마을아카이빙과 마을기록관을 지도하기 위한 실무능력을 갖춘 민속아키비스트가 전제될 때 마을기록관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속의 기록, 보존, 활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민속학과 기록관리학,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양을 지닌 전문적인 민속아키비스트들이 지자체와 마을을 연계하며 바빠 움직일 때 마을기록관도 꽃을 피울 수 있다.

현재 대학의 기록관리학에서 행해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만으로는 민간영역이나 민속의 기록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힘들다. 기록관리학과에서 공공기록물관리학뿐만 아니라 ‘민속기록학’도 충분히 교육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의 민속학과에서도 ‘민속기록학’<sup>40)</sup>이라는 전문분야가 개설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민속기록학을 교육받은 민속아키비스트가 지자체나 커뮤니티 아카이브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산학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 인적자원도 늘어날 수 있다.

#### (5)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마을기록관은 디지털콘텐츠를 겸비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당부분이 소통되고 있어 이것은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시군단위에서 각 마을의 홈페이지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서 주민과 외부인들이 소통하고 마을이야기나 마을의 특산품도 외부에 홍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을행사나 축제도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

40) 기록관리학과 민속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구축하려는 것이 필자가 의도하는 ‘민속기록학’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개진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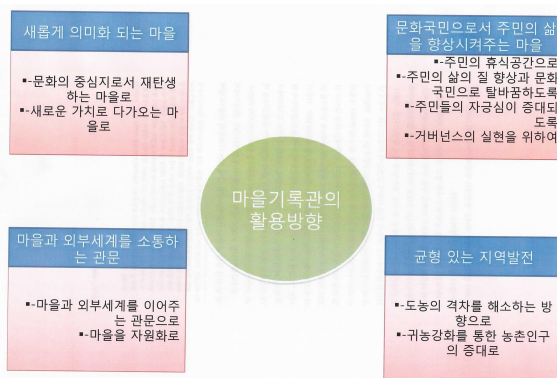


외부에 알리고 방문객들은 그것을 통해 마을에서 느낀 소감을 피력하기도 하고 마을 상품을 주문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을을 떠나 외지에 사는 주민들도 디지털콘텐츠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사이버 상에서 공동체 의식을 이어갈 수 있다.

#### 4. 마을기록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 1) 마을기록관의 활용방향

마을기록관을 통해 마을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그것은 마을의 의미, 주민의 삶의 질, 문화와 역사가 있는 마을, 외부세계와 마을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새로운 공동체 공간을 만드는 기제가 된다. 마을기록관은 이러한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이 지향해야 할 활용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마을기록관의 활용방향

### (1) 새롭게 의미화 되는 마을

첫째, 문화가 드러나지 않았던 마을, 무엇이 문화이며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랐던 마을에서 마을기록관의 존재는 마을을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킨다. 마을기록관을 통해 주민들은 문화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마을이 단순한 삶의 공간이나 주거공간으로만 인식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마을기록관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보다 가치적인 영역에서 부각된다. 또한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서 마을기록관은 기능하며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미풍양속과 문화적인 연속성이 있는 마을로 거듭나게 한다. 마을기록관은 이러한 것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마을은 새로운 가치로 다가온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인식하게 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 마을

첫째, 마을기록관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오늘날 마을에 가면 대개 노인정은 마을회관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70대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기록관에 마을문고, 컴퓨터실, 운동시설, 휴식공간 등을 겸비하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마을기록관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민으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며 공동체문화가 제법 남아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노년층만 남아있는 농촌에는 주민들의 자생적인 놀이문화가 거의 사라진 실정이다. 지신밟기, 윷놀이, 줄다리기, 농요, 달집태우기 등 집단적인

농경의 놀이문화는 점차 마을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문화적으로 활기가 없는 마을에 마을기록관은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함께 마을기록관을 살찌워가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기록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을 가꾸고 영위하며 그들은 노동밖에 모르던 이전의 삶과는 달리 이제 문화국민으로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교양화되며 문화적 인간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셋째, 마을기록관 설립을 계기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은 한층 증대되어야 한다. 낙후된 마을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공간으로서 마을은 신성시되며 소속감도 높아져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새로운 공동체문화로서 주민들의 단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기록관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주민의 의지와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설립되는 마을기록관은 지속적인 민·관의 협력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단순한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문화창조자이자 생산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마을기록관을 설립해줌으로서 시군단위의 지방박물관이나 향토기록관과는 달리 주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문화의 혜택을 주게 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근접성이 뛰어난 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생산되는 마을기록관은 가장 기층에서 주민들과 상대하는 문화시설이다.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 문화콘텐츠시대, 기록화시대에 이제 문화는 밀도 높게 더욱 촘촘하게 주민들의 삶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에 마을기록관이야말로 새로운 장을 여는 주민복지의 터전이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3)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첫째,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외부에 알리며 그 마을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라는 점에서 마을과 외부를 연결해 주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을 통해 문화화를 이룬 마을은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가진다.

둘째,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자원화 해야 한다. 마을의 민속자원, 생태자원, 특산물 등은 관광자원이자 생산품으로서 마을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 (4) 균형 있는 지역발전

첫째, 마을기록관은 도농(都農)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문화변방으로서 농촌은 마을기록관을 통해 더 이상 소외된 농촌이 아니라 문화가 윤택한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도 살기 좋은 마을, 문화가 있는 곳으로서 도회지와 문화적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둘째, 마을기록관은 귀농강화를 통한 농촌인구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낳도록 해야 한다. 살기 좋은 농촌, 문화가 있는 농촌은 인구 과밀화, 혼잡한 교통, 주택난, 이웃 간의 소통단절, 지나친 경쟁, 인간소외 등 도시사회에서 찌든 현대인에게 대안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촌향도를 했지만 앞으로 농촌은 도시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는 곳으로 매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지방화 정책과 병행하여 마을기록관과 같은 농촌 복지정책은 농촌의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 2) 마을기록관의 운영

### (1) 마을기록관의 활동

마을기록관에서는 전거한 활용방향을 목표로 삼고 마을에 대한 연구와 기록, 자료수집과 정리, 보존관리, 전시와 교육 등 제반 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기록관에서 노년층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 예절, 마을사 등을 교육할 수 있고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주민 중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기록관과 연계하여 마을문화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문화콘텐츠의 개발이나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림 6> 마을기록관의 활동

마을기록관이 설립된 후에도 자료수집이나 기록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현재의 기록들이 모여 마을사를 엮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마을기록관에서는 일정한 시기마다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기록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보존 및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확보된 자료를 어떻

게 가공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자료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기록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마을의 문화자원을 DB화 하여 서비스해야 한다.

## (2)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운영 및 관리

마을기록관은 민·관·학(民官學)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토대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된 후에도 삼자의 결속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과 지자체가 공조체제를 가져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관리인원은 주민들 중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마을의 원로인 노인층에서 마을기록관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들은 여가시간이 많고 마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방문객들에게도 안내자로서 적합하다. 필자는 민속조사를 하기 위해 마을에 가면 노년층을 만나서 대담을 하고 그들의 안내로 마을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은 노인 분들만큼 마을사를 이해하지 못하며 바쁜 일상 때문에 마을기록관을 돌보기가 사실상 힘들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생계와 관련된 일을 할 때 노인들은 원로로서 마을의 문화를 전승시키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꺼져가는 불씨가 아니라 마을문화에 열정을 쏟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주민들만으로는 마을기록관이 유지되기 힘들다. 지자체에서는 마을기록관의 유지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전시나 마을아카이빙, 디지털콘텐츠의 관리 등 마을기록관을 둘러싼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타 실질적인 후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마을기록관을 담당하는 민속아키비스트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민속기록전문가가 지자체에 근무하며 산하 마을의 기록관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마

을기록관을 위한 이론을 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방향제시를 해야 한다. 주민과 지자체, 학자들이 향토문화의 근간인 마을을 유지하고 지역의 발전, 문화적 삶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마을기록관의 미래도 밝을 수 있다.

### (3) 지방기록관과 마을기록관의 연계

지난 수년간 기록관리학계에서는 지방기록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해왔다. 안병우는 “지방기록관은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일 뿐 아니라 주민의 문화 요구를 수용하는 문화공간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기록관은 주민이 높은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견을 내는 운동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41)</sup> 또한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기록문화운동단체로 경기기록문화포럼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제안하는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지방기록관도 설립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기록관과 마을기록관은 어떠한 관계망 속에 놓여야 하며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기록관(Regional Archives)’이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시군을 단위로 생각한다. 반면, ‘마을기록관(Maul Archives)’은 마을을 토대로 한다. 지방기록관은 안병우가 말한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자 문화공간인 반면, 마을기록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자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간으로 일정부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기록관에는 아키비스트가 상주하지만 마을기록관은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관리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연계되어야 한다. 지방기록관에 소속된 아키비스트는 주기적으로 관할지역에 있는 마을기록관을 다니면서 지원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을 관리하는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와

---

41) 안병우, 「지방기록관 설립과 경기기록문화포럼의 활동」, 160쪽.

문화에 대해서는 외지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마을기록관을 관리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들의 전시, 수집, 관리, 디지털콘텐츠의 운영, 기록관에 대한 주민교육 등에 있어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자체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기록관을 정점에 두고 산하에 마을기록관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5. 맺음말

마을기록관이란 일반적인 향토자료관이나 전시관이 아니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생활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참여의 공간이며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충족되는 문화공간이다. 오늘날 도시에는 인구가 밀집되고 자본주의 상업문화 속에서 배금주의, 인간성 상실, 정체성 상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은 인구감소, 문화적 소외, 노령화, 마을문화의 멸실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기재로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마을기록관에 대해서는 기록관리학이나 민속학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분야이다. 민속학에서는 마을아카이빙, 현장조사, 자료수집,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기록관리학에서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마을기록관이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전략이나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장점을 수렴하여 마을기



록관 설립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창출하고 대학에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마을에 대한 기록화와 자료수집, 마을기록관의 설립, 마을기록관의 관리와 운영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민·관·학이 협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마을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을 논의했다. 다만 여태까지 이것이 설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한 경험적인 관찰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마을기록관이 꽃을 피우고 그것을 둘러싼 한층 진화된 논의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마을기록관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 새마을운동 초기에 시범마을이 운영되었듯이 초창기에는 몇 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기록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우수마을’ 등과 같은 정책과 보조하여 국가적으로 마을기록관 설립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나 문화관광부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을 위한 이론은 학계에서 생산해야 한다. 지방의 단체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이러한 것을 수용하고 이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권유하는 방법도 있다. 마을기록물 수집과 구술생활사 채록에 대한 프로젝트의 활성화나 마을기록관을 위한 기타 토대연구를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마을기록관에 대한 공개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활동이나 강연도 요청된다.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마을기록관 설립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1호, 한국기록학회, 2009.
- 김덕목,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한국민속기록보존소, 2011.
- , 「문화콘텐츠 시대의 민속기록과 활용」, 『비교민속학』 제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 , 「향토문화의 기록보존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용인시를 중심으로—」,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 : 기업 및 지역공동체와 문화유산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아카이브즈의 활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2010.10.15.
- 김익한, 「마을아카이빙 시론」,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10.6.11.
- 박원순, 『마을, 생태가 답이다』, 검동소, 2011.
- , 『마을이 학교다』, 검동소, 2010.
- ,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검동소, 2009.
- 배영동, 「마을문화전시관으로 본 마을문화의 자원화 과정—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의 사례—」,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속원, 2007.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마을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9.
- \_\_\_\_\_,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 \_\_\_\_\_, 『마을 민속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3.
- \_\_\_\_\_, 『마을 민속비교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6.
- \_\_\_\_\_, 『마을 민속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5.
- 안병우, 「지방기록관 설립과 경기기록문화포럼의 활동」, 『영남학』 제6호, 영남문화연구원, 2004.
- 오하라 가즈오키, 김현정 역,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아르케, 2008.
- 이명규, 「일본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과 대표사례」,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2008.
-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 연구』 제18호, 한국기록학회, 2008.
- 이영재, 「지방박물관에서 마을민속의 자원화 과정과 방법」, 『마을 민속 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7.
- 이영학,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엄, 2010.6.11.
-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향촌민속지 I』, 1992.
- Bastian, Jeannette A, *Community archives—the shaping of memory*, Facet Publishing: London, 2009.
- List, George, “ARCHIVING”, FOLKLORE and FOLKLIF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72.
- White, Kelvin L, “The Role of Culture in Recordkeeping Infrastructures: Developing Culturally Relevant Archives in a Pluralist Society”, 『기

록관리를 통한 기업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 : 기업 및 지역공동체와 문화유산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아카이브즈의 활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2010.10.15.

## ABSTRACT

### **A Suggestion to Establish Maul Archives to Improve Maul Culture**

Kim, Duk-Muk

Maul is a rural community with common culture and self-government system and generally consists of tens of houses living together in Korea. Maul is different from a village in the West. Maul archive is a community archive of a maul. It is not only the space to record the life of residents, history and culture of a maul but also the space to realize democracy by the participation of maul residents and to satisfy the cultural life of current residents.

Nowadays,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maul archives to connect mauls and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to reinforce the original form in maul culture and revive the alienated maul culture.

To establish the maul archives, it is necessary to draw the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res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scientific study of scholars.

The first step to found maul archives is to organize a committee. Then the committee will benchmark the preceding practices, collect, record and manage the maul archives.

The maul archives is recommended to be housed in an existent traditional house with some remodeling for spaces of display and educa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I believe that the maul archive is culturally meaningful for the resident.

They will enjoy and develop their lives better, connected to outside world.  
The co-operation of the scholar, the resident, and the government will  
foster the maul archive to a success.

**key words : maul archives, cultural space, archiving, maul resident,  
governance**